

‘台灣八景’의 출현과 실제

샤오충레이

蕭瓊瑞

國立成功大學歷史系教授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
碩士
台灣美術史

‘대만팔경’은 청대 康熙 35년(1696)에 간행된 高拱乾 편수 『台灣府志』卷9 「外志」 ‘附台灣八景’ 條에서 처음으로 출현한다. 즉 安平晚渡·沙鯤漁火·鹿耳春潮·雞籠積雪·東溟曉日·西嶼落霞·澄台觀海·斐亭聽濤 8수이다.¹ 같은 책 권10 「藝文」의 시 부분에서 고흥건은 총 표제를 ‘대만팔경’이라 달고 8수의 시를 지었다.² 이 시에 이어서 齊體物, 王善宗, 王璋, 林慶旺 등도 각각 8수의 시를 지어 넣었으나, ‘대만팔경’이라는 총 표제를 딱히 붙이지는 않았다.³

바꿔 말해 ‘대만팔경’은 고흥건이 편수한 『대만부지』에 따른 지방지로서 훗날 다른 志書(지방서)와 편집이 달리 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팔경」을 「封域」 혹은 「形勝」편에 넣었고, 또 전해 들은 팔경은 야사인 「外地」 속에 넣었다. 따라서 푸젠(福建)에서 대만과 사면(廈門)의 관찰을 맡았던 고흥건이 지은 팔경의 景點은 이미 당시 관료와 문인 사이에서 서로 교류된 인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같은 제목으로 다량의 시들이 출현한다.

고흥건이 『대만부지』를 편찬했을 당시 대만부는 푸젠에 귀속된 지역으로 분류되

* 필자의 최근 논저: 「藏鋒於拙—陳澄波油彩創作中的水墨特質」, 『故宮文物』,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14, 12; 『陳壽彝生命史』, 台南: 台南市政府文化局, 2014; 『戰後台灣美術史』, 台北: 藝術家出版社, 2013.

1 高拱乾이 편수한 『台灣府志』(1685年修, 1696年刻, 1701年補刻)는 中華書局 編, 『台灣府志三種』(北京: 中華書局, 1985)에 수록, pp.965-966.

2 中華書局 編, 위의 책(1985), pp.1173-1177.

3 中華書局 編, 위의 책(1985), pp.1187-1190, 1201-1212.

었고, 이 책 권1의 「봉역」 속의 「疆界」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이 府는 동쪽으로 바오다리(保大里)의 다자오산(大脚山) 50리까지 경계로 다스리고, 이를 '中路'라 한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漢人이다. 서쪽으로는 평후(澎湖)의 大海洋까지이며, 이 역시 한인이 거주한다. 평후의 물길은 四更(물길은 리로 측량할 수 없어 사람이 타는 배의 숫자로 更이라는 원근의 거리를 정한다. 一更은 대략 50리에 해당한다)이며, 그 외로 넓이가 50리가 된다. 남쪽으로 沙馬磯頭까지 63리를 경계로 한다. 이는 '南路'라고 부른다. 사마기 지역에는 여러 한인과 원주민이 섞여 산다. 이들은 경작을 하며, 여기 庄苑은 대개 한인이다. 북쪽으로 雞籠山까지 2,315리까지를 경계로 한다. 이는 '北路'라 한다. 여기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가까운 부의 관할 안에는 한인과 원주민이 반반 있다. 동쪽으로 山外靑山 이르고 남북이 길게 뻗어 있으니, 여기에는 모두 教를 삼지 않는 원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는 인적이 드문 땅으로 넓고 좁게 이어져 측량하기 어렵다.⁴

위와 같은 구역은 오늘날 지리적 위치에서 본다면 대략 타이난(台南)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다자오산, 서쪽으로는 평후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핑둥(屏東)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룽(基隆)에 이르며, 동편의 '山外靑山'은 남북으로 길게 나 있어 측량해 알기 어렵다.

고홍건 등이 제공한 8개의 지리경관은 당시의 행정구획에 따른 것으로, 대만부에는 澄台觀海와 斐亭聽濤가 속하고, 대만현에는 鹿耳春潮와 西嶼落霞가 속하며, 鳳山縣에는 安平晚渡와 沙崙(鯤)漁火가 속하고, 諸羅縣에는 東溟曉日과 雞籠積雪이 속한다.⁵

고홍건이 책을 편수할 시기 대만의 행정 구획은 一府三縣이라는 기본 구조에 따른 것으로 대만부 아래 附廓으로 대만현이 설치되었고, 또 다른 관할 구역으로 봉산현과 제나현이 설치되었다. 『대만부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1) 대만현은 부곽을 다스리고 평후 36개 섬(평후는 36개 섬이 있고, 각 섬이 침수되어 고립되기도 하고, 이때 땅은 넓어졌다가 좁아지기도 한다. 총 길이는 기록하기 매우 힘들다) 외에 동쪽으로 바오다리 다자오산 50리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평후 물길 4강에 이르고, 물길 외의 넓이는 50리에 달한다. 남쪽의 봉산현은 근접한 마을과 접한 경계가 10리에 이른다. 북쪽으로는 新港溪(작가에 의하면 즉 蔦松溪)와 제나현의 교접 경계가 40리에 이른다. 남북 합친 길이는 50리이다.
- 2) 봉산현은 대만부의 남쪽 125리를 관할한다. 동쪽으로 淡水溪까지 나 있고, 서쪽으로는 打鼓山港 25리에 이르며, 동서 넓이 50리에 이른다. 남쪽에서 사마기 두까지 370리에 달한다. 북쪽에서 대만현 文賢里 二贊行溪까지 125리에 이른다. 남북 합친 길이가 495리이다.
- 3) 제나현은 대만부 북쪽 150리를 다스린다. 동쪽으로 大龜佛山 20리에 이르고, 서쪽으로 대해 30리에 이르며, 동서 넓이 50리에 이른다. 남쪽에서 신강계와 대만현의 교접 경계가 140리에 이르고, 북쪽에서 계룡성까지 2,175리에 이르니 남북 합쳐 2,315리에 해당한다.⁶

고홍건 등은 최초로 대만팔경을 선택 조합했을 때 이러한 행정구역의 의미를 드러냈고, 상당히 균형 있게 경관지점을 분포했다. 부의 관할 내측을 포함해서 일부삼현은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또 매 지역마다 두 개의 경관지점을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팔경의 내용을 구성했다.

팔경의 지정 선택은 사실상 이미 전 대만에 대한 행정권을 드러낸 것이며, 대만의 토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상징화한 것이다. 통치자는 처음 해당 지역에 경관지점을 선택함에 따라 주민과 관료의 공통 인식을 이끌어 내고 관심도 유발시켰다. 특히 대만이라는 벽지는 고홍건의 『대만부지』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다.

대만의 토지를 돌아보면 바다를 넘어서 여행의 기분을 남기고, 도망간 사람들이 가득하다. 새까맣게 아득한 망망대해는 주야로 해와 달이 뜨는지 모른다.⁷

이러한 야만스런 황무지를 팔경으로 선택 결정하는 것은 바로 '彰聖天子'의 덕으

⁴ 高拱乾, 「疆界」篇, 「封域」志, 『台灣府志』卷1, 中華書局編, 위의 책(1985), pp.398-399.

⁵ '東溟曉日'은 諸羅縣에 관할로 謝金鑾, 「山川」篇, 「地志」, 「勝蹟」條, 『續修台灣縣志』, 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 『台灣文獻叢刊』卷1(台北: 台灣大通書局重印本, 1962)에 수록, p.26 참조. '雞籠積雪' 후에, 추가된 註 '此屬淡水와 '東溟曉日'가 있고, 여기에는 '同上'이라는 두 글자가 첨가되어 있어서 '淡水可知'와 같다. 실제로 台灣府署가 있었던 곳은 오늘날 타이난(台南)이고, 여기서 東方大海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東溟曉日'의 경치는 당시에는 대만 북부의 단수이(淡水)에서나 가능하다. 이 구역은 고홍건이 활동했을 시기 諸羅縣에 관할구였다.

⁶ 高拱乾, 앞의 글(1985), pp.401-402.

⁷ 高拱乾, 위의 글(1985), pp.267-268.

로 바람을 일으켜 널리 도화시켜 다스린다.”⁸ 고 하거나 “천하에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몸이 맞는 땅과 같은 곳이다”⁹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청초 시기부터 대만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미 일부삼현이 설치된 것이고, 팔경을 선택 결정했을 때는 균형 있는 분포에 따라 각 관할 지역을 나누는 것으로, 이는 곧 대만을 통치하고 있다고 선포한 것 과도 같다.

위와 같은 지역 고려에 따른 고흥건의 ‘팔경’ 결정은 경관지점의 선택에 있어서 일 반적인 역측을 깬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공간의 고려가 없었던 네덜란드의 고성(포라민 디아 성과 질란디아 성) 건설과 비교된다.¹⁰ 고흥건은 청초 강희제의 통일 성세의 형국 에 따라 팔경을 선택 결정했다. 공간적으로는 구역의 균형 있는 안배를 고려하는 한편 의미상으로는 비교적 전망을 고려해 낙관적인 정서를 반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배합에 따른 ‘대만팔경’이 처음 나타난 것은 행정 구역의 위치와 분 포의 균형 있는 안배 원칙 외에도 공간 안배의 순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정한 질서가 들어 있다. 즉 가장 남쪽으로부터 비교적 외측에 있는 ‘안평만도’·‘사곤어화’와 ‘녹이춘 조’를 시작으로, 다시 가장 북쪽의 ‘계룡적설’로 넘어 간 후, 중간으로 다시 돌아와 동서 지역의 ‘동명효일’과 ‘서서낙하’로 나뉘다, 아울러 부의 관할에 있는 ‘징대관해’와 ‘비정 청도’를 배치했다. 이는 공간적인 의미상 일종의 가깝고 먼 원근과 낮은 데서 높은 곳으 로 향하는 저고를 형성했다가, 다시 먼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근원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고저의 변주를 보여준다.

아울러 둘이 한 쌍의 경관을 이루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인문적 인 풍경을 조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간에 두 쌍의 자연 경관을 조합하고, 다시 인문적 인 풍경으로 돌아간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대구를 이루며 매우 정교하 게 배치되는데, 즉 ‘安平 대 沙鯤’·‘晚渡 대 漁火’, ‘鹿耳 대 雞籠’·‘春潮 대 積雪’, ‘東溟 대 西嶼’·‘曉日 대 落霞’, ‘澄台 대 斐亭’·‘觀海 대 聽濤’이다. 이른바 실에서 허에 이르는 층층의 변화 속에서 번갈아가며 기복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아울러 여운이 감도 는 맛을 느낄 수 있다.

고흥건 등이 이렇게 조합한 ‘대만팔경’은 훗날 乾隆 12년(1747) 范咸에 의해 67인 과 함께 편수한 『重修台灣府志』(이하 『范志』로 약칭)에서 그대로 이어 내려갔고, 아울 러 그림이 삽입되었다. 이는 확실한 지점과 정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

⁸ 高拱乾, 위의 글(1985), p.271.

⁹ 高拱乾, 위의 글(1985), pp.270-271.

¹⁰ 高拱乾, 위의 글(1985), ‘台灣’, ‘赤崁’이라는 두 성을 축조를 이어 건축한 것으로, 이 내용은 「外志」 속에 「兵亂」篇에 기재했다. p.947 참조.

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안평만도

‘안평만도’의 ‘안평’은 바로 봉산현의 안평진에 관할된 ‘安平鎮港’이다. 『대만부지』 권1의 「봉역」지의 ‘台灣縣水道’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현이 관할하는 물길은 여섯 개가 있다. (중략) 안평진항은 潮汐이 녹이문에서 시작한다. 북쪽 사주의 끝에 이르며 신항계류와 만나 이어진다. 남으로는 瀨口에 이르고 鳳山의 岡山계류를 잇는다. 항구는 넓게 이어져 천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이 선박이 천 개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배가 왕래하고 어부의 노래가 곳곳 에 들리니 어초들이 다투어 길을 내는 희희양양한 정경이 드러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안변의 고적 紅毛荒城은 당시 청명한 기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안평의 푸른 바다엔 파랑이 일지 않아, 조각 배 뜬 곳마다 어부의 노래 소리 인다. 서산에 해 지면 행인은 줄어드나, 저녁에 건너오는 돛배 그림자는 여전히 많다.(王善宗)¹²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거대한 보루에 붉게 비치니, 안개 속에 배를 부르는 소리 희미한 초승달 한 조각에, 가벼운 돛배 몇 척
광활한 해안에 날이 점점 저물어가면, 바람 잦아들어 파도가 잔잔하고
어부와 나무꾼이 다투어 길을 가니, 언제나 그림 같아라(고흥건)¹³

『범지』에 나온 팔경의 하나 ‘안평만도’ 그림도¹은 파도가 장활한 바다와 이에 연결 한 아래 쪽 내해와 위쪽(원방)의 바깥 바다를 묘사했고, 바다 가운데 비교적 큰 섬은 현재의 타이난 시 안평 구의 옛 모습인 ‘안평진’이다. 섬 위에 네덜란드인의 유적인 고성

¹¹ 高拱乾, 「台灣縣水道」篇, 「封域」志, 『台灣府志』卷1, 中華書局編, 앞의 책(1985), pp.425-428.

¹²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編, 위의 글(1985), p.1201.

¹³ 高拱乾, 위의 글(1985), p.1173.

질란디아(Zeelandia)는 바로 고흥건의 시에 나오는 '紅彝壘'이다. 성 앞에 취락지구는 '대만 第一街'로 불리는 '大員市鎮'이고, '안평진항'은 화면에서 안쪽 바다가 한면에 따라 펼쳐진 자연 항만이며 이는 내해 즉 '台江內海'이다.

'안평진'을 따라 왼편에 일렬로 7개의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는 七鯤鯓이라 불리며, '대만 팔경' 제2의 '사곤어화'에 해당한다. 이러한 곤신의 모래변은 안평과 대만 본도를 연결한다. 화면



왼쪽 아래로 돌출한 성곽문은 府城의 大西門에 해당하고, 이 문은 '鎮海門'이라고도 불리며 雍正 원년(1723)에 축조되어 渡船口에 위치한다. 건륭 53년(1788)에 重建한 土城垣은 150여 丈 길이로 축소되어, 궁 뒤 길로 옮겨져 현재의 民權路와 西門路口에 해당한다.¹⁴ 『범지』의 팔경도는 건륭 9년에서 11년(1744~1746) 사이에 제작되었고, 이 문은 이 시기에도 '도선구'에 있었기에 안평진과 부성을 오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다. 이 그림에는 바다 위에 범선이 10척 떠 있어 원근에 따라 돛을 단 범선이 묘사되어 있다. 이 범선은 명청 시기 대만 해상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戎克船'이다. 바다 표면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표현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서 말린 곡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어슴푸레한 해질녘 노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건륭 연간 대만현 출신 章甫(1755~1816)의 시에서 '안평만도'는 시점을 서쪽의 안평에서 東望으로 향하고 있다.

강가에 수많은 늪은 어부,
저녁이면 어기여차 어기여차 배져어 동쪽으로 건너간다.
물결 따라 흐르는 석양빛에 바다의 광활함을 알고,
남은 노을 거꾸로 비친 그림자에 하늘을 느낀다.
은하수로 가는 배 아직 나루 위 달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오후에 부는 바람 속에 노 두드리며 나란히 돌아간다.
해안에 이르러 다투어 배를 대면, 저녁 안개 속에 성가퀴 희미해져간다.¹⁵

1
〈안평만도〉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안평만도) 아름다운 석조가 드리울 때 앞 다뤄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의 광경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이다.

2. 사곤어화

'사곤어화'의 '沙鯤'은 '沙崙'이기도 하며 이는 안평진과 연결된 '鯤鯓沙地'를 가리킨다. 『대만부지』 「봉역」지의 '形勝'편 '鳳山縣' 부분에서 '鳳鳴高岡·鯤蟠巨海'¹⁶라고 했다. 여기서 '봉'이란 '봉산'을 가리키고, '곤'이란 '곤신사구'를 가리킨다. 위의 책에서 '봉산현산'은 "서남쪽에 구불구불 이어진 모두 7개의 砂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달렸다.

打鼓山에서 구불구불 서남쪽으로 7개의 사구가 이어져 있다. 말발자국이 거미줄처럼 이어진 형상을 띠며, 마치 곤이라는 물고기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다. 첫 번째 사구에서 일곱 번째 사구까지 거리는 10리 정도 되며, 돌은 없고 모두 모래로 이루어져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무너져 매몰되지 않는다. 그 위에 가시덤불 잡목이 많아 멀리서 보면 푸른색을 띤다. 사구의 바깥쪽은 서남쪽 큰 바다이고, 안쪽은 대만 내항으로 물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곳에 정착하고 어업하는 사람이 거주한다.¹⁷

이러한 해변가 사구는 농사와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기 좋은 토지였다. 밤에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퇴조하고 사람들은 등불을 손에 들고 하늘의 별빛과 바다에 떠 있는 고기잡이배의 불빛을 서로 비춰가며 찬란한 경치를 만들어 보는 이를 감동시킨다. 이에 대해 고흥건은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다.

해안의 모래는 눈 같고, 밤배 불빛은 별과 같다.
몽롱한 달빛 아래 포구엔, 흰마름꽃 핀 모래섬 희미하다.
인어가 사는 집에선 추위도 여전히 비단 짜고, 용궁에 빛이 드니 잠에서 깨려 한다.
물고기 삶아 취하고 나니, 새벽 봉우리 푸른 이곳이 어디인가?¹⁸

¹⁴ 鄭道聰, 『台南城的故事』(台南: 赤崁文史工作室, 2002), pp.16-17.

¹⁵ 이 시는 陳漢光, 『台灣詩錄』(中)(台北: 台灣省文獻會, 1971), p.564를 참조.

¹⁶ 高拱乾, 「封域」志, 『台灣府志』卷1, 中華書局編, 앞의 책(1985), p.404.

¹⁷ 高拱乾, 위의 글(1985), p.418.

¹⁸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pp.1173-1174.

왕선중은 이에 창화시로 답하길:

떠를 이룬 긴 사주 산처럼 쌓여, 푸른 바다를 나
누어 물이 잔잔히 흐르게 하네
점점이 남은 별빛에 먼 포구로 돌아가니, 맑은 빛
밤새도록 사람을 비취주네.¹⁹



『범지』 팔경의 '사곤어화' 그림도²에서 화가는 한 방향으로 시점을 모아 마치 렌즈를 통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듯한 시점으로 묘사했다. 부성에 소재한 도선구는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고, 용이 서린 蟠龍 형상과 같은 곤신사지는 여전히 7개가 있고, 이보다 더 멀리 먼 곳에 하나가 있어 화면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 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는 부감시를 만들어 광폭의 렌즈로 본 것 같다. 사곤과 사곤 사이 일정한 길이의 수풀은 마치 '林投' 류의 관목 숲과 같고, 마치 배들이 잘못 들어서 배열된 사곤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배 위에 얇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배 뒤에 걸린 등불도 발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인이 건축한 성은 화폭 중앙에 묘사되었지만, 그 모습은 끄긴 듯 이어진 선으로 밤에 비춘 모호한 경치로 묘사되어 있다. 북두칠성과 반달이 하늘 높이 걸쳐 있고, 물 밑의 은색 빛이 해수면을 비추고 있다. 이는 선상의 고기잡이 등불과 함께 하늘과 인간 사이를 서로 비추는 듯한 한 폭의 평안하고 풍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위에서 언급한 건륭 연간 대만 출신 장포는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

사곤의 7개 선 대만을 지키니,
하늘이 내린 요해지 동남쪽에 이러한 관문을 만들었네.
무수한 고깃배 해안에 이어지고, 몇몇 인가의 불빛 강 사이로 비친다.
바람에 점점의 불빛 부서지고, 파도에 별빛이 일렁인다.
한밤중에 물고기 삶아 취하여 꿈을 꾸니, 몸이 물 가운데 있음을 모르겠구나.²⁰

요해지 지형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시대 서민의 한가로운 정을 부각시켰다.

2
〈사곤어화〉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3. 녹이춘조

'녹이춘조'의 '鹿耳'는 台江內海로 뚫린 출입구인 '鹿耳門'이다. 이곳은 대만현 관할 지역으로²¹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문호이다. 고흥건이 편수한 『대만부지』권2 「규제」의 '陜塞' 편에서 "그 중요한 요해지는 녹이문이며 또한 대만의 목구멍에 해당되는 항구로서 매우 좁다"²² '항구가 매우 좁다'는 것은 매년 봄이면 조수가 크게 일어 춘조의 소용돌이와 같은 기이한 경치를 볼 수 있음을 말



한다. 이에 대해 왕장의 「녹이춘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는다.

온갖 골짜기 동남쪽에 모여, 봄에 조수가 불어나 아홉구비를 도니
하늘 바깥의 물이 다급히 밀려와, 눈앞에서 산처럼 솟구치네.
내 도는 빈 배 안에 있으나, 마음은 파도 사이에서 놀란다.
이제야 비로소 알겠네, 바다에 배 띄우는 것 괜히 고생스러워 한가로움만 못하네.²³

제체물은 같은 제목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웅장한 천연의 요새지 녹이문에 겨울 조수가 철썩철썩 밀려온다.
노한 파도 흰 말처럼 휘달리고 해안 따라 봄 우레가 내달린다.
달을 바라보며 밤에 물 불어남을 알고, 파도를 보며 뒤에서 재촉함을 느낀다.
누가 능히 종각처럼 바람 타고 만리 파도 답파하여 올 수 있으려나.²⁴

『범지』 팔경에서 '녹이춘조'도³는 면밀한 곡선이 사용되어 봄의 조수가 소용돌이치는 기상변화에 따른 경치로 표현되었다. 항로 위의 선척은 화면에서 아득히 작게 드러난다. 그중 한두 척은 바람을 타고 좁은 바닷길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화면 위 부분의 가옥과 수목이 있는 섬은 현재 사초 일대의 복선 끝으로 '鹿耳'

¹⁹ 高拱乾, 위의 책(1985), p.1201.

²⁰ 謝金鑾, 「詩」篇, 「藝文(三)」志, 『續修台灣縣志』卷8, 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 앞의 책(1962), p.625.

²¹ 范咸 外 67人, 「台灣府」, 「山川」篇, 「封域」志, 成文出版社 編, 『重修台灣府志』卷1(台北: 成文出版社, 1984), p.1369.

²² 高拱乾, 「陜塞」篇, 「規制」志, 『台灣府志』卷2, 中華書局 編, 앞의 책(1985), p.515.

²³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위의 책(1985), p.1206.

²⁴ 高拱乾, 위의 글(1985), p.1188.

門嶼'라고 불리며 섬의 바깥쪽 아래는 안평진이다. 중간의 바닷길은 북선 끝의 물길로 이를 '大港'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안평진 대항'이라고도 불렀다. 북선 끝 우측은 '隙仔'이며 위에 녹이문이 설치된 중간 수로, 즉 녹이문 수로이다.

녹이문은 물속에서 돌기해 떠오른 듯한, 모래로 "감춰질 듯 드러난 그 형태가 마치 사슴의 귀(녹이)와 같다"²⁵고 했으며, 그 위치는 중요한 '鎮鎖水口'²⁶의 관문에 해당한다. 평상시 항구로 난 길이 매우 좁아 배를 모는 사람들 모두 대나무로 표지를 끼웠고 이는 '盪纓'이라 부른다.²⁷

일단 춘추가 일어날 때면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물결이 대단한 장관을 이룬다. 이때는 평소에 쓰던 '탕영(휘감아 도는)'도 아무 소용이 없어, 건륭 초기(1745)에 해방동지(海防同知)를 역임했고, 후에 臺灣縣知縣(1747)을 역임한 安徽 출신의 張若籛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아름다운 봄, 오로지 조수만이 노하여 하늘 높이 땅을 가르며 밀려온다.
멀리 오귀도가 보였다 사라졌다, 백룡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강한 바람에 천층으로 파도가 솟구치는데, 웅장한 녹이문은 만고에 열려있다.
탕영을 잃어버렸는지 소용돌이치고 또 소용돌이치네.²⁸

이 시 속에서 '纓失盪'은 바로 '탕영'을 가리킨다.

4. 계룡적설

'계룡적설'의 '계룡'은 제나현 최북단의 '계룡산'이다. 고흥건이 편수한 『대만부지』 권2 「규제」지 '城池'편에서 "계룡성은 제나현 계룡산에 있고 홍모성을 축조해 오늘에 이른다"²⁹라고 했다. 이 산 역시 대만 산맥의 하나로 중요한 발원지이며 그 형세는 험준하다. 고흥건이 편수한 『대만부지』권1 「봉역」지 '台灣府山' 편에 따르면, "대만의 산은 형세가 북건의 五虎門에서 굽어져 해동으로 대양에 이르면 두 개 산에 이르고, 關同·

²⁵ 范咸 外 67人, 앞의 글(1984), p.1369.

²⁶ 范咸 外 67人, 위의 글(1984), p.1369.

²⁷ 范咸 外 67人, 위의 글(1984), p.1369.

²⁸ 이 시는 陳漢光, 앞의 글(1971), p.350 참조.

²⁹ 范咸 外 67人, 「封域」志, 成文出版社 編, 앞의 글(1984), p.456.

白巖'라고 하여 이는 대만의 주요 산맥이다. 파도의 기복이 숨어 있고 해양을 건너면 대만의 계룡산에 이르니 시작과 끝이 하나다. 우뚝 솟아있는 산 혹은 山谷 혹은 반평지로 2천여 리를 잇는다. 이러한 여러 산은 구릉과 언덕이 많아 가히 다 기록하기 어렵다"³⁰ 고 했다. 따라서 계룡산은 대만 산맥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계룡'은 산 이름인 동시에 섬 이름이기도 하다. 위의 「봉역」지에서 '제나현산' 편을 보면, "계룡의 鼻龜崙은 밖으로 나오면 큰 바다이고, 이 바다에는 작은 섬이 있어 이를 계룡이라 부른다. 바다 위의 작은 섬들은 桶盤嶼·旗干石·石門嶼·雞心嶼 등이며, 이는 대만의 또 다른 중심 맥이 숨어 있는 곳이다"³¹

강희 56년(1717)에 周鍾瑄과 陳夢林이 편수한 『諸羅縣志』 卷12 「雜記志」의 '古蹟'편에 기재된 바는 다음과 같다.

계룡산은 계룡항의 동남에 있고, 계룡섬은 떨어져 바다 서북에 있어 礮城과 番社 모두 섬 안에 있다. 『郡志』(고홍건의 대만부지를 가리킴)에는 계룡성이 제나 계룡산에 있다고 했으나 잘못된 것이다. (강희)53년 지리도에 동북에는 계룡산, 서쪽에는 계룡성이 있고, 산 뒤의 바다 가운데 계룡섬이 있다. 포성과 마을 모두 계룡산에 있으나, 섬은 산 뒤에 있다. 모두 전해 들은 것이지 직접 눈으로 본 지역이 아니다.³²

'계룡적설'이 도대체 계룡산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계룡섬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실상 아직도 논쟁이 따른다.

고홍건이 편수할 당시 여러 사람들이 쓴 제시를 관찰해 볼 때, '계룡적설'의 '계룡'은 당연히 계룡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흥건의 시에서 "북으로 2천 리 가면 차가운 '봉우리'가 하늘 밖에 가로놓여 있다"³³ 제체물의 시에서는 "염해 밖에 오직 이 '산만이 외로이 있음을 알겠네"³⁴ 왕선종의 시에서는 "동지에 '깊은 계곡' 속에 눈이 날리니, 옥 룡이 싸워 떨어지는 흰 눈 속에 풍상을 견디누나"³⁵ 왕장의 시에서는 "적박한 땅에도 다 빛깔이 생기는데, '빈 산'은 먼지로 물들지 않았네."³⁶고 하는 등 모두 분명하게 '산'

³⁰ 范咸 外 67人, 위의 글(1984), pp.405-406.

³¹ 范咸 外 67人, 위의 글(1984), p.424.

³² 陳夢林, 「諸羅縣志」, 『台灣文獻叢刊』(台北: 台灣大通書局重印, 1958), p.289.

³³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앞의 책(1985), p.1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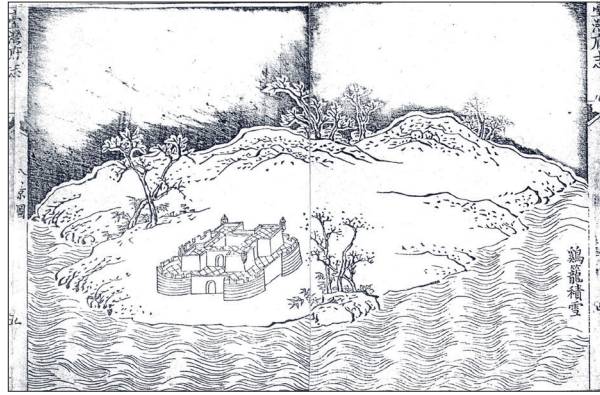
³⁴ 高拱乾, 위의 글(1985), p.1188.

³⁵ 高拱乾, 위의 글(1985), p.1202.

³⁶ 高拱乾, 위의 글(1985), p.1206.

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경은 『범지』 팔경의 '계룡적설'도도⁴에서 하나의 고립된 바다에 있는 백설이 쌓인 섬으로 묘사된다. 섬 위에는 안팎 질란다 성의 서양식 성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성은 17세기 초 스페인 사람이 축조한 '산 살바도르(San Salvador) 성'이 분명하다. 1626년 5월 스페인 함대는 필리핀을 출발해 의도적으로 대만 북부를 공격했고, 이로써 안핑은 일본과의 무역 전략 기지가 되었



다. 얼마 후 바로 섬에 올라와 섬의 서남쪽에 산 살바도르 성을 개수 축조했기 때문에 이 섬이 '계룡섬'으로 불렸던 것이다. 『범지』 「산천」 편에서는 이 위치를 '大雞籠嶼'조에 두었다. 여기서 "대계룡섬은 동북 거리 350리를 다스린다. (중략) 석조 성을 건축한 것은 바로 郡城 팔경의 하나인 '계룡적설'이다. 대만 평지는 서리와 눈이 내리지 않으나 이 섬은 북쪽 맨 끝으로 추위가 심해 겨울에 눈이 쌓인다"³⁷고 했다.

同治 연간(1856~75)에 이르면 陳培桂는 『淡水廳志』에서 「全淡八景」이라 했고, '계룡적설' 또한 '雞嶼晴雪'이라 고쳤다.³⁸

'계룡적설'이 결국 '계룡산'인지 아니면 '계룡섬'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막론하고, 혹자는 이것이 대만의 지리 구획과 기후 특성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吳子光이 저술한 『台灣記事』 권의 「台灣紀略」에서 "계룡적설은 郡志 팔경의 하나로 역시 전승된 말이다. 대만에서 서리와 눈은 극히 드물게 보인다."³⁹고 했다. 오늘날 천웨이시엔(陳捷先)은 저명한 『台灣方志研究』에서 지적하길, 계룡적설은 허구적인 경치이며 고흥건이 이를 '팔경'의 하나로 넣고 시로 묘사하면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⁴⁰

천웨이시엔이 말한 계룡에 내린 눈이란 일찍이 蔣毓英의 『台灣府志』(1685)에 이

4
〈계룡적설〉
『중수대만부지』
정 1747년

³⁷ 范咸 外 67人, 「淡水廳」項, 「大雞籠嶼」條, 「山川」篇, 「封域」志, 成文出版社 編, 앞의 책(1984), pp.1383-1384.

³⁸ 陳培桂, 「全淡八景」條, 「形勝」篇, 「封域志」志1, 『淡水廳志』卷2, 이 책은 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 『台灣文獻叢刊』(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1963)에 수록, p.40.

³⁹ 吳子光, 「台灣紀略」, 『台灣記事』卷1, 이 책은 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 『台灣文獻叢刊』(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1959)에 수록, p.16.

⁴⁰ 陳捷先, 『台灣方志研究』(台北:學生書局,1996), p.54.

미 나온 것이며, 장육영의 기록 중 「氣候」조에 "계룡이라는 지방은 (중략) 지대가 높고 바람이 세서 겨울과 봄에 때때로 서리와 눈이 내린다"⁴¹고 했다. 청대 초기만 해도 대만 북부에 온 사람들이 적었으나 이후 장육영이 『대만부지』를 편수할 때에도 다만 전해진 것을 따를 뿐,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가 편수했던 기간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과 약간의 거리가 있어 여전히 난제가 존재한다.⁴²

고흥건에 와서 팔경에 '계룡적설'이 들어가고, 또 시와 연결되면서 크게 오도되어 후대에 미심쩍은 혐의를 남기게 된 것이다. 또한 천웨이시엔은 고흥건의 시 중 "북으로 2천리 가면 차가운 '봉우리'가 하늘 밖에 가로놓여 있다. 오랜 세월 검붉은 눈꽃, 한밤중 벽계 울음소리"⁴³라고 한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만 부성에서 계룡까지 2천리 걸리며, 이 지역에 있는 산을 '오랜 세월 검붉은 눈꽃'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묘사다. '계룡적설'은 완전히 허구의 경치이며, 고흥건이 만들어낸 것으로 후세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왔다. 동치 연간에 이르러 어떤 이가 『淡水廳志』의 「형승」 부문에 '雞嶼晴雪'라는 경치를 적어놓았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미 "계룡적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앞에 나열한 계룡은 郡誌에 팔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허구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경치는 무려 170여 년 동안 이어져 우리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고흥건이 만든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천웨이시엔 역시 천명린(陳夢林)의 질의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보류했다.

천명린은 독실한 지방지 연구 전문가로서, 그는 제나현지를 편집했을 때 이미 사람을 4곳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했다. 특히 산천 형세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상세한

⁴¹ 蔣毓英, 「氣候」篇, 『台灣府志』卷1, 이 책은 『台灣府志三種』(北京:中華書局, 1985, 5版)에 수록, p.12.

⁴² 陳捷先, 앞의 책(1996), p.32.

⁴³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앞의 책(1985), p.1174.

⁴⁴ 陳捷先, 앞의 책(1996), p.54.

사실을 조사했다. 그는 “이 두루마리는 친히 사찰하거나 파견해 그림을 제작하는 등 세 번의 고증을 거쳐 정정해 기재했다”고 했고 아울러 그 또한 계룡이 결코 오랜 동안 눈이 내려 쌓인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는 일찍이 “군지에서 대만 팔경은 제나현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계룡적설’이다. 그러나 제나현의 명적은 실로 여기에 없다. 대만은 오랜 전부터 자갈이 흘렀고 계룡은 북단에 있으며, 조금 춥고 가끔 눈을 볼 수 있어 승경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계룡적설’의 경치라고 기재했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유명한 고고학자이지만 때로는 세속적으로 미화된 명승의 하나임을 부정하긴 어려웠다.⁴⁵

따라서 천웨이시엔은 이러한 府志書에서 육경, 팔경, 심지어 십경을 변용시켰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구로 조작되어 대만지 안에 ‘古蹟名勝, 善意強調’라는 공식적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방 인사들은 지방의 명승고적에 대해 그 특징의 서술을 중시한다. 말하자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며 특히 폄하할 일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과장되고 미화시킨 것은 의미상 사실성이 떨어진 보도이기에 옳지 않다.⁴⁶

‘계룡적설’은 천웨이시엔의 지적대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 것 중 하나가 분명하다. 천 씨와 같은 논점은 「대만 지구 지방지서의 개벽 사료 평의」에서 또 다시 등장했다.⁴⁷ 천웨이시엔의 사실을 증명하려는 정신은 매우 경탄할 만하다. 그러나 고흥건의 팔경의 하나인 ‘계룡적설’의 편집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시와 詠 등의 문학과 함께 토론할 여지도 없애서는 안 된다.

우선 계룡에 눈이 오는가에 대한 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대만 북부 기후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해될 것이다. 아울러 장육영의 『대만부지』 이후 “때때로 서리와 눈이 온다”는 구절은 고흥건이 “오랜 동안 눈꽃이 피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시를 지을 때 과장된 수사법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비교해 논할 바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계룡 지역을 단지 서리와 눈이 내린 경치만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오히려 기이한 경관 구성은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때때로 내리는’ 혹은 ‘오

랜 시간’이라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북으로 2천리 가면’이라는 말은 시를 짓는 과정에서 ‘白髮三千丈’과 같은 화법이기에 때문에, 이 지역의 먼 거리감은 백발의 길이처럼 2천리, 혹은 삼천장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닐까? 이러한 의미적 표현은 지면으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만일 고흥건의 “북으로 2천리 가다”라는 표현이 잘못이라면 『대만부지』의 「봉역」지 ‘강계’편에 “대만부가 다스리는 (중략) 북으로 계룡산 2천3백15리”⁴⁸란 표현 역시 함께 검토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일종의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계룡적설’을 이해한 것은 고유의 과정과 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구의 경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는 태도로 ‘때때로’ 혹은 ‘오랜 기간’ 등은 따져야 할 것인가? ‘계룡산’ 혹은 ‘계룡섬’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근대 천한광(陳漢光)은 다른 설을 내놓았다. 그는 ‘계룡’이 오늘날 대북현 瑞芳鎮 관할 내에 있는 계룡산의 약칭으로 보았다. 매우 드물게 눈이 내려 쌓인다. 따라서 大屯火山을 오인한 것이다. 당시 서쪽에서 배를 타고 富貴角을 따라 계룡(지룽)항에 도착했고, 富貴角 바다 위에는 적설의 산이 있어 대개 대둔화산 계열이다. 선박이 계룡 해안으로 들어서면 비로소 계룡산을 볼 수 있다.⁴⁹ 천한광은 “본래 平淡無奇란 단지 대만의 서리와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산의 경물 역시 점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치를 묘사한 옛 문장은 없다. 이 경치를 찬영한 고시는 오히려 매우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모두 상상한 것으로 그 누구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계룡적설’의 묘사인 것이다.”⁵⁰ 따라서 옛날의 기후가 오늘날과 완전히 같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타이베이 양밍산(陽明山) 해발 700미터에는 자주 눈이 내리며 계룡산은 해발 588.5미터로 과거에는 아마도 적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완전한 정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5. 동명효일

‘동명효일’의 ‘동명’은 불확실한 지명인 동방대해이다. 『대만부지』권1 「봉역」지

⁴⁵ 陳捷先, 앞의 책(1996), p.200.

⁴⁶ 陳捷先, 위의 책(1996), p.199.

⁴⁷ 陳捷先, 「平議台灣地區地方志書中的開關史料」, 『台灣地區開關史料學術論文集』(台北: 聯經, 1996), pp.59-61.

⁴⁸ 中華書局編, 앞의 책(1985), p.402.

⁴⁹ 陳漢光, 「台灣八景의 演變」, 『觀光』(季刊)創刊號(台北: 1964. 1), p.43.

⁵⁰ 陳漢光, 위의 글(1964), p.43.

‘대만부산’편에 “대략 만으로 된 산으로 뒤로는 동명. 서쪽 바다를 마주하며 군과 읍에 있다”⁵¹ ‘동명’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대만의 많은 산을 뒤로 한 동방대해이다. 따라서 林慶旺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동방에 걸린 태양, 완자가 먼 바다에 보이고
구비진 물에 거센 파도 이는데, 하늘 호수엔 새벽빛이 반짝인다.
아름다운 그 모습 안개를 흩뜨리고 고운 빛깔 부상에서 나온다.
푸른 바다 멀리 바라보니 산호빛으로 찬란한 아침 화장을 한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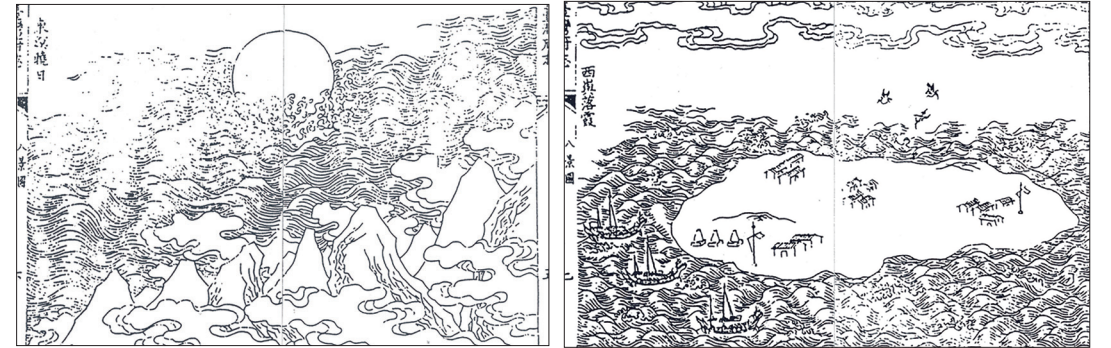
『범지』 팔경 중에 ‘동명효일’도⁵³는 바로 거대한 태양을 묘사했고 먼 바다 대해 속에서 떠오른 장황한 경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동명 대해는 새벽 해를 조망하는 경관으로 대만부가 다스린 대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대남 지역과 동방대해 사이는 우뚝 솟은 중앙산맥의 첩첩 산으로 막혀 있어서 소위 ‘둥근 모양의 먼 바다’와 같은 아름다운 장관의 경치로, 당시 관할인 제나현의 계룡 지방에서 볼 수 있다. 대팔경이라는 것이 전 대만을 범주로 하지만 동서남북의 위치 개념에서 부가 다스리는 대남 지역을 드러내며 이는 대만 현을 중심축으로 한다. 소위 ‘동명효일’은 대만현이 다스린 ‘서서낙하’를 표현한 것으로 일종의 문인이 할 수 있는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6. 서서낙하

‘서서낙하’의 ‘西嶼’는 평후에 위치하나 대만현 관할에 속하며 당시 전 대만의 정세 상 가장 위험한 요지였다.

대만현은 우뚝 솟은 木岡山 하늘의 구름은 赤崁城은 바다를 마주한 사주로 해질 녘 안개 노을은 층층이 해안 도시의 경치를 볼 수 있다. 밖으로는 평후 35개 섬이 있어 별로 수놓은 것 같고, 안으로는 녹이문이 있어 바다 파도가 굽이쳐 일고 있으니, 험준한 요새인 고로 장단점이 있다.⁵³



5
〈동명효일〉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6
〈서서낙하〉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서서는 평후 36개 섬 중 가장 서쪽의 큰 섬으로 옛 지명은 漁翁島로 『대만부지』 「봉역」지 「대만현산」 「附澎湖嶼」편에 “서서 배후에는 하늘에 걸려있는 달처럼 우뚝 솟아 있으니, 즉 안과 밖이 이중으로 둘러쳐진 못과 같은 지형이다. 평후 가장 서쪽을 나타내며 사면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는 곳이다.”⁵⁴

따라서 서서는 평후와 사면(澎湖), 대만과 사면(台灣)을 왕래하는 필수 경유지이다.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은 처음 서서에 도착해, 여기서 복잡한 심경으로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된 풍경의 석양 낙조를 보게 된다. 이는 대륙에서 보지 못한 드문 풍경으로 고향을 떠난 흥분과 그리운 마음이 더해졌을 것이다.

『범지』 팔경의 ‘서서낙하’도⁵⁵는 大山嶼(오늘날의 평후 섬 馬公 지역) 서쪽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바다 가운데 섬, 즉 서서이다. 섬 위의 취락은 祠廟가 모여 있고, 묘는 廟塚 모두 기가 꽃혀 있으며 남북 각각 하나가 있다. 남방의 묘좌에는 옆에 석탑과 같은 모양의 3개가 있다. 이는 평후 특유의 石敢當(석표) 문화이다. 이 삼탑은 外坡社 내의 ‘三尖塔仔’가 서 있다. 그 옆 廟宇에 이르면 아마도 外坡의 ‘池王廟’일 것이다. 북방(우측)의 묘는 아마도 허형(合橫)의 ‘溫王廟’로 보인다. 光緒 19년(1893)의 『澎湖廳誌』 권2, 「叢祠(附)」편, ‘大王廟’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은 다른 여러 王廟가 있고 서서의 外壘(즉 외안)은 특히 영혼들은 상선의 출입에서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 바다에 던져 제사를 지낸다.⁵⁵

51 陳漢光, 앞의 글(1971), p.406.

52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앞의 책(1985), p.1211.

53 高拱乾, 「台灣縣」條, 「形勝」篇, 「封域」志, 『台灣府志』卷1, 中華書局 編, 위의 책(1985), pp.403-

404.

54 高拱乾, 「藝文」,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위의 책(1985), p.412.

55 林豪, 『澎湖廳志』는 台灣銀行經濟研究室, 『台灣文獻叢刊』第51種(台北: 台灣大通書局重印, 1958)에 수록, p.43.

‘서서낙하’도의 우측 아래 대해에는 선박 3척이 있고 섬 위쪽으로 바다와 하늘이 만난다. 또한 3마리 나는 새가 있고, 다채롭게 길게 난 하늘이 펼쳐지고 굽이진 모습은 색채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낸다. 건륭 연간 章甫(1755~1816)는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저녁 노을이 머금은 산 그림자 차츰 사라지니, 붉은 노을 땀호에 비스듬히 비친다.
물오리 모래사장에 줄지어 날다 홀연 무지개다리 지나 바다 모퉁이에 떨어진다.
오색 무늬 찬상에서 내려와 아홉 빛깔 수놓은 비단 물 속에 펼쳐놓았네.
저녁에 부는 바람에 가벼운 돛배 지나가고, 구름 속에 오가는 배는 옛 그림 같아라⁵⁶

시정과 화의 모두 잘 부합된다. 강희 연간 대만지현을 지낸 張宏은 이 시에서 서서낙하의 아름다운 특색을 잘 파악했다고 다음과 같이 시를 썼다.

석양이 붉은 금모래에 드리우니, 서서가 머금은 노을 빛 화사하다.
마치 무성한 숲이 불꽃나무로 변한 듯, 언뜻언뜻 보이는 맑은 시내는 용과 뱀이 다투는 듯
길 위로 드리워진 빛은 비단을 가로질러 놓은 듯, 하늘에 비친 빛은 꽃을 뿌린 듯
멀리 날아가는 갈가마귀 바라보니 두견새 같고, 만물이 하나 하나 다 꽃 핀다.⁵⁷

노을이 대지에 가득 펼쳐지자 온갖 만물이 마치 환상적인 색채를 지닌 불꽃나무와 비단처럼 보인다.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만 곧 어두운 밤이 닥칠 것이다. 대만의 道莊年은 ‘서서낙하’를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다.

남은 낙조 얼마 남지 않아 해는 차츰 지는데, 흩어진 비단 높은 봉우리에 가득하다.
외로운 난새 강가에 나는 외로운 난새 따르지 않고, 수풀에 떨어지는 갈가마귀 따랐지.
요새를 지나는 무지갯빛 몇 가닥 비단, 금빛 고리 같은 초승달을 가린다.
노을을 먹으려 하나(혹은 신선이 되고 싶으나) 해강에게 부끄럽다, 바빠 사느라 세속의 풍진이 옷깃에 가득하니.⁵⁸

⁵⁶ 陳漢光, 앞의 글(1971), p.564.

⁵⁷ 陳漢光, 위의 글(1971), p.179.

⁵⁸ 胡建偉, 『藝文紀』, 『澎湖紀略』卷12는 台灣銀行經濟研究室, 『台灣文獻叢刊』(台北: 台灣大通書局

7. 징대관해·비정청도

‘징대관해’와 ‘비정청도’의 ‘징대’와 ‘비정’은 모두 대만부 관할의 西定坊이 台廈道 甯 우방을 다스린다. 고흥군이 대만에 도착한 후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고, 이 대와 정 건물은 강희 32년에 건축한 것이다.⁵⁹ 이와 관련해 고흥군은 정자와 대루 건물을 보수 건축하는 데 신경을 썼고, 앞 장의 『澄台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예부터 대만의 나무로 지은 것은 승람을 뽐내고 아름다움을 칭송했다. 이는 군자로서 비웃음을 당할 일이다. 만일 비용 절약의 걱정을 덜려면, 담당자 천문관은 위엄을 지키려는 폐단이 아닌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만이라는 이름은 山橫海嶠하여, 조망할 데가 있다면 관민과 시전 모두 기거하고 또 굽이진 물가의 모래밭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처음 풀도 없는 황무지를 개척하며 監司廳의 일은 먼 산으로 가서 비바람 맞는 곳에서 기거하며 솥터를 개척하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이목에 나쁜 말을 들을까봐 염려되고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회포를 풀 곳이 없어 사방에 수비를 치며 여러 섬을 왕래한 모임에서 바다색과 산빛 역시 볼 수가 없다.

이에 공인을 불러 모아 小亭의 관리를 처리한 후에 객지에 대나무를 둘러 벽을 만들어 ‘斐亭’이라 이름을 지었다. 또한 대를 축조한 정자 좌측도 파도 소리 들리는 섬의 경승지임을 깨닫고, 여기에 중요한 요충지에 오르는 사이에 있어 그 이름을 또 ‘澄’이라 지었다.⁶⁰

위의 글에서 고흥군이 보수 축조한 정과 대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외지에서 사치스럽다고 할까봐 걱정하며 ‘비정’과 ‘징대’라 고쳤다고 지적했음을 설명했다. 회포를 풀고 심려를 없애기에 좋은 곳이며 동시에 손님을 맞아 명과할 수 있는 곳이다. 아마도 정자와 대루가 보수 건설된 후 대나무를 심어 주위를 울타리를 만들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대나무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서로 조화롭게 이뤄지는 가장 훌륭한 피서지였을 것이다. 징대에 올라 끝없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줄지은 섬들을 자

重印, 1959)에 수록, p.272.

⁵⁹ 范咸: 王必昌 外 66人, 『雜紀』, 『古蹟』篇, 『重修台灣府志』卷15, 成文出版社 編, 앞의 책, pp.536-537.

⁶⁰ 高拱乾, 『藝文』志, 『台灣府志』卷10, 中華書局 編, 앞의 책(1985), pp.1137-1138.

세히 바라본다. 실제로 제체물, 왕선종, 왕장, 임경왕 등과 같은 관원, 문인, 아사들이 '비정'과 '징대'를 오가며 시를 읊어 창으로 응대했고, 대만팔경 시는 이러한 장면을 남긴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징대관해'그림⁷에서 '징대'는 높은 관서 꼭대기와 깃발을 지나 대루 위에 4개의 기둥이 있는 정각으로 사면의 난간이 있다. 사람들은 이 난간에 기대어 조망할 수 있었고, 바다는 다소 멀리 있어 파도문이 여러 개로 각 그림마다 작게 표현되었고 파도를 완만하고 평평하게 묘사했으며 선박은 바람을 맞으며 나아간 모습이다. 바람은 감각적으로 파도 무늬의 기복으로 표현했고 깃대와 깃발은 바람에 나부끼는 듯 표현했다. 화면에서는 건축 계화 양식을 피하고 주로 단조롭게 그렸다. 지리적인 면을 고찰해보면 당시 대하도서가 있던 곳은 오늘날의 타이난시 중시취(中西區) 융푸루(永福路) 2단에 있는 융푸초등학교이다. 台江內海에는 육지화되지 못했을 때 해수는 대하도서에서 멀리 않은 곳까지 솟구쳐 들어왔다. 정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이 대에 오르면 근심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고흥건은 「징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바람 불고 안개 낀 날 객이 새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면 속세의 피로가 쌓이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니, 그 절경의 누각에서 근심 걱정을 완전히 풀 수 있으니 감탄이 나오며, 또 티끌의 때를 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 외에도 이 대에서 여러 봉우리(凌虛)를 초연할 수 있으니, 누가 좋지 않다고 하겠는가?⁶¹

고흥건은 또 이어서 이렇게 시로 읊었다.

바다처럼 넓은 뜻 품고 일 없이 높은 누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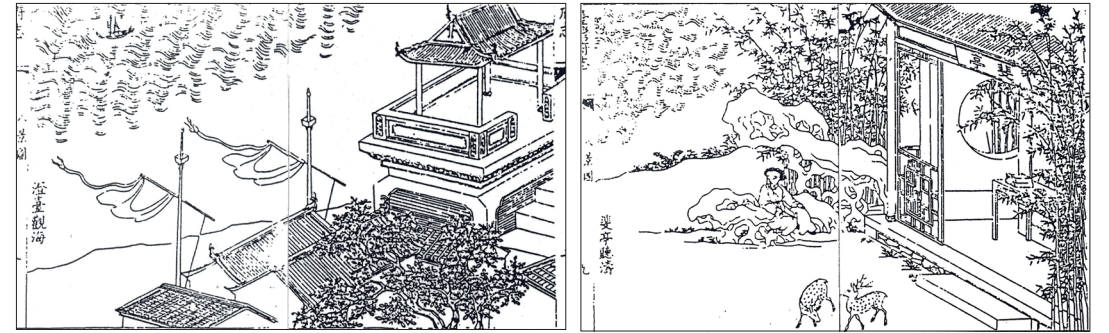
몽롱한 기운 자패로 들어가고, 더러움을 흥모에서 씻는다.

바다 건너는 것 평소의 뜻이니, 어찌 노 젓는 수고를 마다하리오?⁶²

'비정청도'도⁸에서 관복을 입은 문인은 기이한 돌 앞의 정자에 홀로 앉아 있다. 이 기석을 보면 태호의 '太湖石'과 닮았는데, 마르고 뾰족한 면을 통과한 돌이다. 독좌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관원이 몸을 기울여 경청하는 모습으로 뒤편의 대나무가 바람에 소리를 내는 것을 귀로 듣는 모습이다. 이 역시 멀리서 바다 파도가 소용돌이를 치

⁶¹ 위와 같음.

⁶² 위와 같음.



7
〈징대관해〉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는 소리일 것이다. 청사 정원에 두 마리 사슴 한 쌍이 놀고 있고, 이 사슴은 대만 특유의 梅花鹿으로 암수 한 쌍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은 정자 안에 높은 다리의 긴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위에 여러 책이 놓여 있다. 정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둥근 창과 난간이 있으며 길게 뻗은 대나무와 기석이 있어 문인 취향을 드러낸다.

8
〈비정청도〉
『중수대만부지』
청 1747년

결국 강희 33년과 34년 사이(1694~95) 고흥건 등이 『대만부지』를 편수했던 시기는 청조가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한 1683년부터 불과 11, 12년 후로, 이는 청의 조정이 국력을 다져 뻗어 나가 천하를 통일한 시기이다. 지방지와 같은 책의 편수 편찬은 바로 정권의 시행 및 경계의 점유를 선포한 것이다.

문정희 옮김

주제어 keywords

八景 eight Views, 台灣八景 The Eight Views of Taiwan, 高拱乾 Gao,Hongqian, 台灣府志 Taiwan Prefecture Gazetteer, 台南 Tainan

투고일 2016년 2월 15일 | 심사일 2016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14일

- 陳培桂 Chen, Peigui, 『淡水廳志 *Danshui Tingzhi*』
 高拱乾 Gao, Hongqian, 『台灣府志 *Taiwan Fuzhi*』
 蔣毓英 Jang, Yuying, 『台灣府志 *Taiwan Fuzhi*』
 林豪 Lin, Hao, 『澎湖廳志 *Penghu Tingzhi*』
 王瑛曾 Wang, Yingzeng, 『重修鳳山縣志 *Hongxiu Fengshan Xianzhi Revised*』
 吳子光 Wu, Ziguang, 『台灣記事 *Taiwan Jishi*』
 朱景英 Zhu, Jingying, 『海東札記 *Haidong Zhaji*』

- 陳漢光 Chen, Hankwang, 『台灣詩錄 *Taiwan Shilu*』(中 mid), 台北: 國史館台灣文獻館 Taipei: Taiwan Historica, 1984.
 陳捷先 Chen, Juexian, 『台灣方志研究 *Taiwanfangzhiyanjiu*』, 台北: 學生書局 Taipei: Student Book, 1996.
 范咸 外 67人 Fanxian etc., 『重修台灣府志 *Taiwan Fuzhi Revised*』, 台北: 成文出版社 Taipei: Chengwen Press, 1984.
 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 Taiwan Economy Research of Taiwan Bank, 『台灣文獻叢刊 *Encyclopedia of Taiwan*』, 台北: 台灣大通書局 Taipei: Taiwan Datong Shuju, 1959.
 王必昌 外 67人 Wangbiyuan etc. 67, 『重修台灣府志 *Taiwan Fuzhi Revised*』, 台北: 宗青 Taipei: Zhongqing, 1995.
 鄭道聰 Zheng, Daoqing, 『台南城的故事 *Tainanchengdegushi*』, 台南: 赤崁文史工作室 Tainan: Qikanwenshigongzuoshi, 2002.
 中華書局 編 Zhonghua Book Company eds., 『台灣府志三種 *Taiwan Fuzhi Sanzhong*』, 北京: 中華書局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85.

Emergence of the Eight Views of Taiwan and Associated Practices

Hsiao, Chongray

Taiwan's Eight Views, the poem's title, appeared in *Taiwan Prefecture Gazetteer* (台灣府志, 1696) edited by Gao, Hongqian (高拱乾) under Qing Dynasty rule, for the first time.

The *Taiwan's Eight Views* has been compiled in different versions according to the compilations of Taiwan's Fuji, and also, it has been published with poems and paintings by being combined with other varied "eight landscapes". The eight landscapes indicate "overpass of Anping(安平晚渡)", "glow of Shakun(沙鯤漁火)", "spring of Luyi(鹿耳春潮)", "snowing of Jilong(雞籠積雪)", "dawn of East(東溟曉日)", "mist of West island(西嶼落霞)", "see sea on pavilion(澄台觀海)", and "listening to the waves of Feiting pavilion(斐亭聽濤)". The eight areas selected as the eight landscapes show both the equal division and the regional arrangement to all the directions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over Taiwan. Also, the areas display the harmonious relations of the seasonal characteristic with excellent scenery and the change between morning and evening. The natural scenery and human, which are represented in the painting of Taiwan's Eight Views, come into view, as being harmonized with actual fact at the time. The expression in a record, such as "snowing of Jilong(雞籠積雪)", displays misunderstanding and exaggeration in fact and representation, but at least, it can be said as a unique feature that is shown through humanistic appreciation and literary imagination.

The formation of the "Taiwan's Eight Landscapes" under Qing Dynasty rule, later, represents Taiwan's historical meaning, significance, and humanistic politics and economics. Also, throughout the ancient history of China expressed in the eight

landscapes, the painting's geographical meaning – that is, the fact that particular landscapes of Taiwan were selected – has a characteristic of the marine culture, compared to islands and China. In fact, seeing it from the view of Qing Dynasty, it seems that selecting the particular areas called Eight Landscapes is a proclamation of the unified Taiwan toward the outside. In other words, selecting and determining the eight landscapes were, for the ruler of Qing Dynasty, the way of declaring the fact that Taiwan was a territory in governed territory. In such way,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Taiwan come to reflect the recognition that are shared by both the immigrants from China to Taiwan and the officials dispatched by the government.

原文

「台灣八景」的出現與實際

蕭瓊瑞

「台灣八景」的出現，首見於清康熙三十五年(1696)刊行、高拱乾編修《台灣府志》卷九〈外志〉之「附台灣八景」條，即所謂：安平晚渡、沙鯤漁火、鹿耳春潮、雞籠積雪、東溟曉日、西嶼落霞、澄台觀海、斐亭聽濤¹。同書卷十〈藝文〉詩作部份，則有高拱乾總標題為「台灣八景」的詩作八首²；同卷稍後，另有齊體物、王善宗、王璋、林慶旺等人同名詩作各八首，但並未再特地標題「台灣八景」的總名稱³。

換而言之，「台灣八景」在高修《台灣府志》時，尚未如後來的志書般，將「八景」列入「封域」或「形勝」的篇章之中，而是放在屬於傳聞野史的〈外志〉當中。然而，可以肯定的：由於時任福建分巡台廈道的高拱乾之倡導，這些景點，已在當時仕宦文人間，有了一定的認知與共識，因而有大量的同名詩作呈現。

高氏編纂《台灣府志》時之台灣府，係歸福建所轄，轄下界域，在卷一〈封域〉之「疆界」篇記載，大致如下：

其府治東至保大里大腳山五十里為界，是曰『中路』；人皆漢人。西至澎湖大海洋為界，亦漢人居之；除澎湖水程四更(水程無里鋪，舟人只以更數定遠近，一更天約早程五十里。)外，廣五十里。南至沙馬磯頭六百三十里為界，是曰『南路』；磯以內，諸社漢番雜處，耕種是事，餘諸里庄多屬漢人。北至雞籠山二千三百一十五里為界，是曰『北路』；土番居多，惟近府治者，漢番秦半。至於東方山外青山，迤南亘

¹ 參見高拱乾《台灣府志》(據《台灣府志三種》，北京：中華書局，1985.5版)，總頁965-966。

² 同上註，總頁1173-1177。

³ 同上註，總頁1187-1190，及總頁1201-1212。

北，皆不奉教，生番出沒其中，人跡不經之地，延袤廣狹，莫可測識。⁴

這樣的區域，以今天的地理區位來看，大抵即以台南為中心，東至大山山腳，西至澎湖，南至屏東，北達基隆，至於更為東方的「山外青山」，則是迤南亘北，莫可測識。

高拱乾等人所提供的八個景點，依當時的行政區域劃分，屬台灣府治的有：澄台觀海和斐亭聽濤；屬台灣縣治的有：鹿耳春潮和西嶼落霞；屬鳳山縣治的有：安平晚渡和沙崑(鯤)漁火；屬諸羅縣治的則有：東溟曉日和雞籠積雪⁵。

高拱乾時，台灣的行政區劃，基本上是一府三縣的架構，也就是在台灣府下，置附廓的台灣縣，及外縣的鳳山縣和諸羅縣；各縣轄區，依《台灣府志》記載如下：

- 1.台灣縣治，附廓，除澎湖三十六嶼(澎有卅六嶼，各孤懸於巨浸中，地之廣狹，里之短長，叢襍不可紀極。)東至保大里大腳山五十里；西至澎湖水程四更，除水程外，廣五十里；南至鳳山縣依仁里交界十里；北至新港溪(作者按：即蔦松溪)與諸羅縣交界四十里。南北延袤五十里。
- 2.鳳山縣治，在台灣府南一百二十五里。東至淡水溪二十五里，西至打鼓山港二十五里，東西廣五十里；南至沙馬磯頭三百七十里；北至台灣縣文賢里二贊行溪一百二十五里；南北延袤四百九十五里。
- 3.諸羅縣治，在台灣府北一百五十里。東至大龜佛山二十一里，西至大海三十里，東西廣五十一里；南至新港溪與台灣縣交界一百四十里，北至雞籠城二千一百七十五里，南北延袤二千三百一十五里。⁶

高拱乾等人在擇定這組最早的台灣八景時，顯然有意就這些行政區域，作頗為平均的景點分布，而包括府治在內，一府三縣正好四個地區，每個地區以兩個景點為原則，也就形成了這組八景內容。

八景的擇定，事實上既是一種對統有斯土的宣示，也是一種對土地認同的表徵。統治者初領該地，透過景點的擇定，有利於住民及宦仕的認同，並形成向心。尤其是台灣這種初

關之地，一如高拱乾在《台灣府志》序言中所云：

顧台灣葦爾土，越在海外，游氛餘孽，蔚為連蔽，熒熒番黎，茫茫不知有晦明日月，…⁷

對這樣一種蠻荒未化之地，八景之擇定，正足以「彰聖天子一德同風之盛，廣久道化成之治。」⁸ 也可「使天下觀看者，如身履其地。」⁹ 而有所認同。清初領有台地，既設一府三縣，八景擇定時，平均分布各個轄屬地區，也就自可同收宣示、號召之功效。

高氏擇定八景，既有如上考量，因此，在景點的選擇上，也打破了一般的臆測，如：經常被提及的荷建古城(包括普羅民遮城和熱蘭遮城)，均不在考慮之列¹⁰；毋寧說：高氏以清初康熙大一統盛世之格局，其擇定之八景，在空間上，既考量區域均衡原則，在意義上，也較偏向積極、前瞻的樂觀情緒。

這組最早提出的「台灣八景」，除在行政區位的分布上，考量均衡原則外；在空間的安排順序上，也顯然暗含一定的秩序。也就是先由最南邊也是較外邊的安平晚渡、沙鯤漁火、鹿耳春潮為開端，再跨及最北邊的雞籠積雪，然後回到中間而分屬東西的東溟曉日與西嶼落霞，以及府治之內的澄台觀海與斐亭聽濤。在空間意象上，形成一種由近而遠，由低而高，再由遠而近，由高而低的變化與節奏。

同時，兩兩一組的景觀，在內涵上，也從最初的一組人文之景，中間參雜兩組自然之景，最後再回到一組人文之景。而用詞、意象的對仗上，也頗為工整，包括：安平對沙鯤、晚渡對漁火；鹿耳對雞籠、春潮對積雪；東溟對西嶼、曉日對落霞；澄台對斐亭、觀海對聽濤；由實而虛、層層遞變，讀來既有迭宕起伏之變化，也有餘韻繞樑之趣味。

高拱乾等人所提的這組台灣八景，在日後(乾隆12年刊行)范咸、六十七的《重修台灣府志》(以下簡稱《范志》)中獲得完整的延續，並加入圖繪；其確實地點及情境，大抵可確認如下：

一、安平晚渡

「安平晚渡」之「安平」，即指時屬鳳山縣治的安平鎮轄之「安平鎮港」。《台灣府志》

⁷ 同上註，總頁267-268。

⁸ 同上註，總頁271。

⁹ 同上註，總頁270-271。

¹⁰ 高拱乾《台灣府志》，係將「台灣」「赤崁」二城之建，列入〈外志〉中之「兵亂」篇，見總頁947。

卷一〈封域〉志之「台灣縣水道」篇，有謂：

縣治之為水凡六。……一曰安平鎮港，潮汐從鹿耳門。北至洲仔尾，受新港溪流；南至瀨口，受鳳山之岡山溪流。港內寬衍，可泊千艘。¹¹

這種船舶千艘、漁歌處處，且漁樵爭路、攘攘熙熙的景況，對照岸邊古蹟的紅毛荒城，一片清平氣象，正是所謂：

滄海安平水不波，扁舟處處起漁歌；
西山日落行人少，帆影依然晚渡多。(王善宗)¹²

日腳紅彝壘，烟中喚渡聲；
一鉤新月淺，幾幅淡帆輕。
岸闊天遲暝，風微浪不生；
漁樵爭去路，總是畫圖情。(高拱乾)¹³

在《范志》八景的(安平晚渡)圖中圖¹，波濤壯闊的海面，連接下方的內海與上方(遠方)的外海，海中較大的島嶼即今日台南市安平區的昔日「安平鎮」；島上有荷蘭人遺存的舊堡—熱蘭遮城(Zeelandia)，也正是高拱乾詩中的「紅彝壘」。堡前聚落，是有「臺灣第一街」之稱的「大員市鎮」，所謂的「安平鎮港」，正是畫面中靠近內海一面的自然港灣，此內海即台江內海。

沿著「安平鎮」左方，一系列多達七座的沙丘，即所謂的七鯤鯓，也正是名列「臺灣八景」第二的「沙鯤漁火」。這些鯤鯓沙地連通了安平與台灣本島。畫面左下方突出的城門，應即府城的大西門，此門又名「鎮海門」，初建於雍正元年（1723），位在渡船口上。乾隆五十三年（1788），再重建土城垣，內縮了150餘丈，移至宮後街，也就是今日的民權路、西門路口¹⁴。《范志》八景圖，繪作於乾隆九至十一年間（1744~1746），此門仍位在「渡船口」上，正是往來安平鎮與府城間最重要的交通要衝。海面上有帆船10艘，或遠或近，這些有著桅杆的帆船，正是明清之際臺灣海上最重要的交通工具，又稱「戎克船」。海面由近而遠，海天交接

處，以捲曲連綿的線條，表現晚霞的瑰麗。

乾隆年間的臺灣縣人章甫（1755-1816）詩吟〈安平晚渡〉，視點轉了一個方向，由西方的安平往東望，詩曰：

江干多是老漁翁，欸乃聲聲晚渡東；
落日流光知海闊，餘霞倒影覺天空。
浮槎未上津頭月，鼓棹齊回午後風；
到岸爭先停夜泊，糊模雉堞暮煙中。¹⁵

對(安平晚霞)瑰麗餘暉、歸帆爭泊的場景，有極生動的描繪。

二、沙鯤漁火

「沙鯤漁火」的「沙鯤」，一作「沙崑」，指的也是安平鎮旁連綿的鯤鯓沙地。《台灣府志》〈封域〉志之「形勝」篇「鳳山縣」部份，有謂：「鳳鳴高岡、鯤蟠巨海」¹⁶。鳳者，係指鳳山；鯤者，即指鯤鯓沙丘。同卷「鳳山縣山」載云：「…又逶迤而西南，有鯤鯓者七。」並註記：「自打鼓山蜿蜒而亘西南，共結七堆土阜，有蛛絲馬跡之象，如鯤魚鼓浪然。自一鯤鯓遞至七鯤鯓，相距有十里許，並無□石，俱皆沙土生成；然任風濤飄蕩，不能崩陷。上多荆棘雜木，望之有蒼翠之色。外係西南大海，內係台灣內港，宛在水中央。採捕之人居之。」¹⁷

這個淺灘的沙丘之地，也正是採捕之人進行近海作業的良地。夜暗時分，隨著海潮進退，採捕者人手一盞火燈，形成天上星光、海面漁火相輝映的璀璨盛景，頗為動人。因此，高拱乾詩云：

海岸沙如雪，漁燈夜若星；
依稀明月浦，隱躍白蘋汀。
鮫室寒猶織，龍宮照欲醒；
得魚烹醉後，何處曉峰青？¹⁸

¹¹ 《台灣府志》，卷之一，〈封域〉志，「台灣縣水道」篇，總頁425-428。

¹²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201。

¹³ 同上註，總頁1173。

¹⁴ 鄭道聰《台南城的故事》(台南：赤崁文史工作室，2002.9)，頁16-17。

¹⁵ 詩見陳漢光《台灣詩錄》(中)(台北：台灣省文獻會，1971)，頁564。

¹⁶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一，〈封域〉，總頁404。

¹⁷ 同上註，總頁418。

¹⁸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173-1174。

王善宗也唱和曰：

長沙一帶積如山，碧海分流水自潺；
數點殘星歸遠浦，清光永夜照人間。¹⁹

在《范志》八景的(沙鯤漁火)圖中圖2，畫家的角度，調整了一個方向，鏡頭由北往南移，府城所在的渡船口已經不在畫面中，形如蟠龍的鯤鯨沙地，仍然保持七個，越是遠方的一個，畫得越大，如此一來，便形成了一種由上往下俯看的超廣角鏡頭。沙鯤與沙鯤之間有一些掙長的樹叢，看來類似「林投」一類的灌木叢，而船隻就參差錯誤地排列在這些沙鯤的一側；仔細辨識，可以看見船上對坐的人影，也可以發現船後懸掛的灯火。荷蘭人的城堡，仍在畫幅之中，但形狀模糊，以斷續的線條代表夜暗中的景象。北斗七星和弦月高掛天際，灑下的銀光盪漾海面，和船上的漁火，天上人間兩相輝映，形成一幅安詳豐足的氣象。

文前提及的乾隆年間臺灣縣人章甫即詩吟：

沙鯤七線鎮臺灣，天險東南設此關；
無數漁舟連海岸，幾家烟火出江間。
風搖螢點參差碎，浪拍星光錯落圓；
夜半烹魚眠醉夢，不知身在水中山。²⁰

以地形的險要來襯托出平和時代中的庶民間情。

三、鹿耳春潮

「鹿耳春潮」的「鹿耳」，即指台江內海出入孔道的「鹿耳門」。此地轄屬台灣縣²¹，為台地重要門戶。在高修《台灣府志》卷二〈規制〉之「阨塞」篇，即云：「…詳其要津，則鹿耳門者，又台之咽喉也，港口甚窄。」²² 正由於「港口甚窄」，每年春天，潮水大漲，即形成春潮洶湧的奇景。因此王璋的〈鹿耳春潮〉即云：

百谷東南滙，春潮漲九環；
急來天外水，突起眼前山。
吾道虛舟裡，人情駭浪間；
始知浮海者，徒苦不如閒。²³

齊體物同名詩，亦云：

鹿耳雄天塹，寒潮拍拍來；
激濤翻白馬，匝岸走春雷。
候月知宵漲，看波感後催；
誰能慕宗慤，萬里駕風回。²⁴

《范志》八景中的(鹿耳春潮)圖圖3，用綿密的曲線，表現了春潮洶湧的氣象。幾只航行其上的船隻，在畫面中顯得特別渺小；其中有一兩艘，正趁著風勢，強渡那些狹窄的海道。

畫面上方有房宇樹木的島嶼，應即今日四草一帶的北線尾，又稱「鹿耳門嶼」，島的左下方，為安平鎮，中間海道即北線尾水道，又稱「大港」，或稱「安平鎮大港」；北線尾的右方，是「隙仔」，上設鹿耳門汛，中間水道即鹿耳門水道。

鹿耳門是水中突起的浮沙，「若隱若現，形如鹿耳」²⁵，其地位之重要，乃「鎮鎖水口」²⁶之關鍵。平常由於港道窄隘，行船的人皆以竹插為標誌，名曰「盪纓」²⁷。

一旦春潮乍起，洶湧澎湃，蔚為景觀。連平日作為導引的「盪纓」都失去了作用，因此乾隆初曾任海防同知(1745)，後任臺灣縣知縣(1747)的安徽人張若靄有詩謂：

春媚潮偏怒，兼天截地來；
望迷烏鬼渡，幻作白龍堆。
風勁千層立，門雄萬古開；
正疑纓失盪，旋起復旋回。²⁸

²³ 同上註，卷之十，〈藝文〉志，總頁1206。

²⁴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188。

²⁵ 前揭范咸、六十七《重修台灣府志》，卷一，〈封域〉志，總頁1369。

²⁶ 同上註。

²⁷ 同上註。

²⁸ 詩見前揭陳漢光《台灣詩錄》(上)，頁350。

其中的「纓失盪」，指的正是「盪纓」。

雞籠積雪

四、雞籠積雪

「雞籠積雪」之「雞籠」，即諸羅縣最北端的「雞籠山」。高修《台灣府志》卷二〈規制〉志「城池」篇，謂：「雞籠城在諸羅縣雞籠山，紅毛所築，今圯。」²⁹ 此山也是台灣山脈的一個重要源頭，形勢險要。高修《台灣府志》卷一〈封域〉志「台灣府山」篇即云：「台灣山，形勢自福建之五虎門，蜿蜒渡海東，至大洋中二山，曰關同、曰白叻者，是台灣諸山腦龍處也；隱伏波濤、穿海渡洋，至台之雞籠山，始結一腦。扶輿磅礴，或山谷、或半(平)地，繚繞二千餘里，諸山屹峙，不可紀極。…」³⁰ 由此可見雞籠山在台灣山脈中的重要地位。

不過，「雞籠」既為山名，同時也是嶼名。《府志》〈封域〉志之「諸羅縣山」篇，即謂：「自雞籠鼻龜崙之外為大海，海有小嶼，曰雞籠、曰桶盤嶼、曰旗干石、曰石門嶼、曰雞心嶼，則又台灣之腦龍隱見處焉。」³¹

康熙五十六年周鍾瑄、陳夢林所修《諸羅縣志》卷十二〈雜記志〉「古蹟」篇亦載：

	
雞籠山在雞籠港之東南，雞籠嶼乃在隔海之西北，礮城、番社俱在嶼中。《郡志》(按指高志)載：雞籠城在諸羅雞籠山，誤。五十三年(按指康熙)地理圖記村東北有雞籠山、西有雞籠城，山後海中有雞籠嶼；似礮城與社俱在雞嶼山，而嶼在山之後。皆耳食而未親歷其地者也。 ³²	

從高氏當時諸人所題詩句觀察，似乎「雞籠積雪」之「雞籠」應係指雞籠山而言，如：高拱乾之詩曰：「去北二千里，寒『峰』天外橫。」³³ 齊體物詩曰：「惟於炎海外，方覺此『山』孤。」³⁴ 王善宗詩曰：「冬至絮飄『深谷』裡，玉龍戰退耐風霜。」³⁵ 王璋詩曰：「瘠壤皆生色，空『山』不染塵。」³⁶ 明顯地，都是直指「山」的意象。

	
---------------	---------------

^[29] 前揭范咸、六十七《重修台灣府志》，卷一，〈封域〉，總頁456。

^[30] 同上註，總頁405-406。

^[31] 同上註，總頁424。

^[32] 陳夢林《諸羅縣志》(台灣文獻叢刊，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頁289。

^[33]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174。

^[34] 同上註，總頁1188。

^[35] 同上註，總頁1202。

^[36] 同上註，總頁1206。

不過這種情形，到了《范志》八景的(雞籠積雪)圖中圖4，係被描繪成一個孤立海面、積滿白雪的島嶼；島上還有一座類如安平熱蘭遮城的西式城堡，此城堡，應即十七世紀初期西班牙人所建之「聖薩爾瓦多城」(San Salvador)。按一六二六年五月，西班牙艦隊自菲律賓出發，意圖攻取臺灣北部，以作為和日本貿易的戰略基地；不久，便在今和平島登陸，並在該島西南修築「聖薩爾瓦多城」，此島應即所謂之「雞籠嶼」。在《范志》「山川」篇中，也將該景置於「大雞籠嶼」條下，謂：「大雞籠嶼，在廳治東北二百五十里。…上建石城，即郡城八景之一『雞籠積雪』也。台地無霜雪，獨此嶼極北寒甚，冬有積雪。」³⁷

而到了同治年間陳培桂《淡水廳志》，所謂「全淡八景」，「雞籠積雪」也已改成了「雞嶼晴雪」³⁸。

然而不論「雞籠積雪」指的到底是「雞籠山」或「雞籠嶼」，有人從台灣的地理區位和氣候特性，直指這是一種不可能的以訛傳訛。如吳子光《台灣記事》卷一〈台灣紀略〉，即云：「雞籠積雪為郡志八景之一，亦傳會之辭。台地稀見霜雪。」³⁹ 而今人陳捷先在其知名《台灣方志研究》一書中，也不止一次指出：雞籠積雪是虛設的一景，從高拱乾將他列入「八景」之一，並作詩描寫，就不符事實，也「害人不淺」⁴⁰。

陳捷先指出：雞籠下雪之說，早從蔣毓英的《台灣府志》中即已存在，蔣志「氣候」條下記：「雞籠地方，…地高風冽，冬春之際，時有霜雪。」⁴¹ 這是因為清領初期，到過台灣北部的人不多，主修蔣志的人多得自傳聞，不加勘量，同時蔣志編修時間僅僅三數月，記事稍離事實，乃是難免⁴²。

至於高拱乾提出八景之說，將「雞籠積雪」列入，且自繫以詩，則大有誤導後人的嫌疑。同時，陳捷先對高氏詩中所謂：「北去二千里，寒峰天外橫；長年紺雪花，半夜碧雞鳴。」⁴³ 也大表不解。他說：

	
從府城台南到雞籠，竟有二千里之遙，而其地有山『長年紺雪花』，真是不符事實	

^[37] 前揭范咸、六十七《重修台灣府志》，卷一，〈封域〉志，「山川」篇，「淡水廳」項，「大雞籠嶼」條，總頁1383-1384。

^[38] 陳培桂《淡水廳志》(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台灣文獻叢刊」本，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卷二，志一，〈封域志〉，「形勝」篇，「全淡八景」條，頁40。

^[39] 吳子光《台灣記事》(台灣銀行台灣經濟研究室「台灣文獻叢刊」本，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卷一，〈台灣紀略〉，頁16。

^[40] 陳捷先《台灣方志研究》(台北：台灣學生書局，1996)，頁54。

^[41] 蔣毓英《台灣府志》(《台灣府志三種》，北京：中華書局，1985,5版)，卷之一，「氣候」篇，總頁12。

^[42] 前揭陳捷先《台灣方志研究》，頁32。

^[43]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總頁1174。

的描寫。『雞籠積雪』完全是虛設的一景，是高拱乾開始編造出來的，後世相沿不

改，到同治時，有人寫《淡水廳志》，在〈形勝〉一門中，還列了『雞嶼晴雪』一景，

當時作家已知道不實，但仍說：『前列之雞籠，為郡志八景之一，似不可闕。』這個

虛設的美景，竟相沿一百七十多年而仍然存在，大出我們的想像，高拱乾也可以說

害人不淺。⁴⁴

不過，在這種未求其實、不斷傳抄的過程中，陳捷先也認為陳夢林是有所質疑而說詞保留的。他說：

陳夢林是一位篤實的方志專家，他在編纂諸羅縣志時曾派人四出實地探訪，特別

對於山川形勢，力求翔(詳)實。他說：『茲卷或躬親遊歷，或遣繪圖，三復考訂，乃

登記載。』同時他也知道雞籠並不長年積雪，他曾指出：『郡志台屬八景，諸羅居其

一，所謂『雞籠積雪』也。然諸羅之名蹟，實不在此。台地夙號磔石流金，雞籠居極北，稍寒，偶爾見雪，遂稱勝耳。』

可是他還是記下了『雞籠積雪』一景，由此可知：雖是有名的考據學者，有時還是免不了隨俗的要妝點名勝一番。⁴⁵

因此，陳捷先將這種志書中為了湊成六景、八景，甚至十景，常有不顧事實的虛設捏造，歸因於台灣志書中「古蹟名勝、善意強調」的共同弊病。他說：

地方人士對地方的名勝古蹟重視特寫，說起來也並非錯事，更不是壞事；不過誇大妝點，著意作失真的報導，就不合宜了。⁴⁶

「雞籠積雪」顯然就是陳氏認為失真、不合宜的一個顯例。陳氏相同的論點，在〈平議台灣地區地方志書中的開關史料〉一文中，亦再度提及。⁴⁷

陳氏求真求實的精神，的確令人欽佩。不過單就高拱乾「雞籠積雪」列入「八景」之一，並題詩贊詠一事而言，似乎仍有可以討論的空間。

⁴⁴ 前揭陳捷先《台灣方志研究》，頁54。

⁴⁵ 同上註，頁200。

⁴⁶ 陳捷先〈平議台灣地區地方志書中的開關史料〉(《台灣地區開關史料學術論文集》，台北：聯經，1996.6)，頁59–61。

⁴⁷ 陳捷先〈平議台灣地區地方志書中的開關史料〉(《台灣地區開關史料學術論文集》，台北：聯經，1996.6)，頁59–61。

首先，雞籠是否下雪之事，或許不能從今天的台灣北部氣候來作直接的理解，況且自蔣志以來所謂：「時有霜雪」之事，和高氏的「長年紺雪花」之間，固然有程度上的差異，但詩作之誇飾寫法，應非論者有必要去過度計較的。問題在：如果雞籠一地，只要有霜雪之景，構成奇觀，即非虛設，至於是「時有」或「長年」，也就屬較為次要之論了。

同理，關於「北去二千里」之說，在詩作中一如「白髮三千丈」的說法，只在突顯此地之遙遠與白髮之長，是不是二千里、三千丈？似乎不在那個字面上的意義。何況二千里之計算，係以當年曲折的步行里程計算，而非今日採直線測量的方式，如果說高氏的「北去二千里」有誤，那麼《府志》中〈封域〉志「疆界」篇所載：「其府治…北至雞籠山二千三百一十五里…」⁴⁸ 是否也都應一併檢討修正？

因此，基於一種文學、藝術的理解，「雞籠積雪」固有誇飾之嫌，應非虛設之景；但基於求真求實的態度，與其追究是屬「時而」或屬「長年」？不如探究是指「雞籠山」或指「雞籠嶼」？

關於這點，近人陳漢光倒有另外一說，他認為：「雞籠，係雞籠山的省略，在今台北縣瑞芳鎮轄內。極少有積雪的事，應是大屯火山的誤認。當時西來船隻多沿富貴角而至雞籠(基隆)港，在富貴角海上所見積雪之山，多係大屯火山巔；及船進雞籠海面，所見者才是真的雞籠山，…」⁴⁹，不過，陳漢光也認為：「本來是平淡無奇，但因台灣無霜雪，高山有此景物，亦可聊以點綴。描寫此景的古文章沒有的，詠此景的古詩卻很多，但據我所見，全都是想像，似乎沒有一個人是看過『雞籠積雪』而寫的。」⁵⁰ 然而氣候的變化，是否能完全以今度昔，還是十分可疑；近年來台北陽明山海拔700公尺處就經常下雪，而雞籠山海拔588.5公尺，在過去的年代中，是否積雪？恐怕也很難完全定論。

五、東溟曉日

「東溟曉日」的「東溟」，指的是一個不確切地點的東方大海。《台灣府志》卷一〈封域〉志「台灣府山」篇云：「…大約灣之山，背東溟、面西海，而郡邑居其中。」⁵¹ 「東溟」指的應就是整個台灣眾山之背的一個東方大海。因此林慶旺詩有云：

⁴⁸ 前揭高拱乾《台灣府志》，總頁402。

⁴⁹ 陳漢光〈台灣八景的演變〉《觀光》(季刊)創刊號，台北，1964.1)頁43。

⁵⁰ 同上註。

⁵¹ 前揭陳漢光《台灣八景的演變》，總頁406。

東方懸太陽，丸子見重洋；水曲騰波勢，天池躍曙光。

麗形能破霧，艷色出扶桑；一望滄溟遠，珊瑚燦曉粧。⁵²

《范志》八景中的(東溟曉日)圖圖5，畫的正是一輪巨大的太陽，在重洋大海中冉冉升起的壯闊景觀。

不過這種東望大海、眺望曉日的景觀，似乎不是台灣府治的台南台地所能得見；因為台南地區與東方大海之間，有高聳的中央山脈重山阻隔，所謂「丸子見重洋」的壯麗景觀，似乎只能在當時轄屬諸羅縣的雞籠地方可得見。然而所謂的大八景，雖以全台為範疇，但東西南北的方位概念，顯然仍以府治所在的台南地區，也就是台灣縣為立足點；而所謂的「東溟曉日」，也正用以對仗同屬台灣縣治的「西嶼落霞」之一種文人想像了。

六、西嶼落霞

「西嶼落霞」的「西嶼」，位在澎湖，但仍屬台灣縣治範疇，也是當時全台形勢最為險要之地。所謂：

台灣縣，木岡山聳峙雲霄，赤崁城危臨海渚，日暮烟霞，蜃樓海市之鉅觀。外有澎湖三十六嶼，星羅碁布，內有鹿耳門，海天波濤，行迴曲折，險要固塞之地，莫或最焉。⁵³

西嶼正是澎湖三十六嶼中最為西方之大島，古名漁翁島。《府志》〈封域〉志「台灣縣山」之「附澎湖嶼」篇，有云：「…獨西嶼之背，懸聳天半，即內外二塹地也，極澎之西表，為廈門西渡者之標準焉。」⁵⁴

因此，西嶼是澎湖，甚至台廈往來交通必經之地。離鄉之移民，初至西嶼，見夕陽落霞繽紛、海天一色，應是大陸生活所未見，也難免興發懷鄉離愁之情緒。

在《范志》八景的(西嶼落霞)圖圖6，描繪的正是由大山嶼(也就是今日澎湖本島的馬公地區)西望的景像，海中的島嶼就是西嶼。島上有聚落、有叢祠廟宇，廟埕均插有旗座，南北各一。較特別的是南方一座，旁邊有類如石塔三座，應即是澎湖特有的石敢當文化，而此三

塔，則是位在外垵社內的「三尖塔仔」。至於旁側的廟宇，或許是外垵的「池王廟」，北方(即右側)一座，或許是合橫的「溫王廟」。修於光緒十九年(1893)的《澎湖廳誌》，卷二「叢祠(附)」篇，「大王廟」條有謂：

今各澳多有王廟，而西嶼外塹(按：即外垵)，尤著靈異，凡商船出入，必備牲醴投海中，遙祀之。⁵⁵

在(西嶼落霞)圖中，右下方大海中有船舶三艘，島的上方，海天交接處，又有飛鳥三隻；彩霞橫互天際、曲折蜿蜒，象徵色彩的多樣與變化。乾隆年間詩人章甫(1755-1816)有詩吟：

夕照銜山影漸無，丹霞斜渡入澎湖；
相隨鷺鳥飛沙際，忽斷虹橋落海隅。
五色文章天上降，九光錦繡水中鋪；
晚來風送輕帆過，雲裏行舟古畫圖。⁵⁶

詩情與畫意頗為相符。康熙年間曾任台灣知縣的張宏，亦在詩中掌握西嶼落霞瑰麗璀璨的特色，詩曰：

夕陽搖曳紫金沙，西嶼含霞景色奢；
彷彿濃林成火樹，依稀清澗鬥龍蛇。
光拖陌上如橫錦，影射天邊似散花；
遙望飛鴉疑杜宇，頓數萬物盡生華。⁵⁷

當落霞佈滿大地，一切似乎都成了帶有迷幻色彩的火樹橫錦，充滿生命的光華，只是暗夜緊接就來臨。台灣道莊年亦有〈西嶼落霞〉詩云：

殘照無多日漸沈，建標散綺滿高岑；
不隨孤鸞飛江滸，偏逐歸鴉落樹林。
塞過垂虹幾條錦，掩將新月一鉤金；

⁵²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211。

⁵³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一，〈封域〉志，「形勝」篇，「台灣縣」條，總頁403-404。

⁵⁴ 同上註，卷之十，〈藝文〉志，總頁412。

⁵⁵ 林豪《澎湖廳誌》(台灣銀行經濟研究室「台灣文獻叢刊」第51種，1958)，頁43。

⁵⁶ 前揭陳漢光《台灣詩錄》(中)，頁564。

⁵⁷ 同上註，(上)，頁179。

欲餐自揣榭中散(選詩：中散不偶世，本是餐霞人)，鞅掌風塵俗滿襟。⁵⁸

七、澄台觀海、斐亭聽濤

「澄台觀海」與「斐亭聽濤」之「澄台」與「斐亭」，均在府治西定坊之台廈道署後方。乃高拱乾蒞事後，為澄心抒懷，在康熙三十二年所建的亭台⁵⁹。有關高氏修建此亭台之用心，在前章所引〈澄台記〉中，已有詳細說明。其記曰：

古者台榭之作，誇遊觀而崇侈麗，君子譏之。若夫制樸費約，用以舒嘯消憂，書雲攬物，斯高人之所不廢，亦廉吏之所得為也。

台灣之名，豈以山橫海嶠，望之若台？而官民市廛之居，又在沙曲水匯之處耶？然厥土斥鹵、草昧初闢，監司聽事之堂，去山遠甚，匪特風雨晦明起居宴息之所，耳目常慮雍蔽、心志每多鬱陶。四顧隱然，無以宣洩其懷抱；並所謂四省藩屏、諸島往來之要會，海色峰光亦無由見。

于是捐俸鳩工，略庀小亭于署後，以為對客之地；環繞以竹，遂以『斐亭』名之。更築台于亭之左隅，覺滄渤島嶼之勝，盡在登臨襟帶之間，復名之曰『澄』。⁶⁰

從這段文字可以清晰看出高氏修葺亭台，擔心外界以侈廢視之，特有所說明，指出「斐亭」、「澄台」之修，固有益於宣洩懷抱、澄靜心慮，同時也是對客唱和之所。我們可以想像，當亭台修成之後，環植叢篁，自夏徂秋，竹響共濤聲相和，最宜消暑；而登上澄台，滄波浩渺，島嶼參差，悉入望中。齊體物、王善宗、王璋、林慶旺等官員、文人、雅士，就是在這「斐亭」、「澄台」之間，吟詩對唱，台灣八景之詩，也應是在這種場景所留下的產物。

在(澄台觀海)圖中圖7，「澄台」高過官署屋頂、旗桿，台上有四柱亭閣，四面欄杆，人可以在此憑欄遠眺；海就在較遠的一方，波紋較諸其他各圖為小，波浪平緩，船舶趁風而行。風的感覺，表現在波紋的起伏，也表現在旗桿上的旗幟，旗幟飄揚，避免了畫面以建築界畫為主的單調感。依地理考據，當時的台廈道署應在今台南市中西區永福路二段的永福國小處。在台江內海尚未完全陸化之時，海水仍可直湧道署不遠處。在政務繁忙之餘，登臨斯台，

⁵⁸ 胡建偉《澎湖紀略》(台灣銀行經濟研究室「台灣文獻叢刊本」，台北：台灣大通書局重印)，卷十二，〈藝文紀〉，頁272。

⁵⁹ 《重修台灣縣志》，卷十五，〈雜紀〉，「古蹟」篇，頁536-537。

⁶⁰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137-1138。

頗有洗塵澄慮的功能。高拱乾在〈澄台記〉中就云：

…當風日和霽，與客登台以望，不為俗累，不為物蔽，散懷澄慮，盡釋其絕域樓遲之歎，而思出塵氛浩淼之外，則斯台比諸凌虛超然，誰曰不宜？⁶¹

高氏並繫之以詩曰：

有懷同海闊，無事得台高；瓜憶安朝棗，山驅太白鼇。
鴻濛歸紫貝，腥穢滌紅毛；濟涉平生意，何辭舟楫勞？⁶²

至於(斐亭聽濤)圖中圖8著官服的文人，獨坐亭前奇石之間；這奇石看來，像煞來自太湖的「太湖石」，穿透瘦挺；獨坐若有所思的官員側身傾聽，耳邊傳來的既是後方竹子迎風的聲響，也是遠方海浪洶湧的濤聲。院中還有兩隻遊戲的鹿隻，這鹿是台灣特有的梅花鹿，一公一母；一旁的「斐亭」，亭中有高腳長桌，桌上還擺著書本。亭子規模不大，但有洞窗、欄杆，又有修竹、奇石，一派文人品味。

總之，康熙三十三、四年間(1694~95)，也就是高拱乾等人纂修《台灣府志》的時間，距離大清統有台灣(1683)，不過十一、二年時間；而這個時期，也正是清廷國力鼎盛、天下一統的時期；志書的修纂，正足以宣示政權的施行與疆土的佔有。

⁶¹ 同上註。

⁶² 前揭高拱乾《台灣府志》卷之十，〈藝文志〉，總頁1137-1138。